



김지연 명위 브라운 미디어 이사 서지 상무



브라운 드진 학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전하는 권오용 국제협력위원장(SK 브라운 대리부 문장 부사장)



인사말을 전하는 이순동 한국광고주협회 회장



황학의 제일기획 수석 국장

광고주의 밤 KAA Awards 시상식

22일 오후 6시부터 진행된 '광고주의 밤'에서는 광고주들이 한자리에 모여 광고주의 위상 제고와 국가경제 기여도를 함께 생각하고, 국내광고산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한국광고주협회 이순동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광고주대회는 그동안 마케팅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기업과 광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광고주대회를 통한 광고주의 권익보호 노력은 변함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회장은 또 "향후 미디어 환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변화를 요구할지도 모르나 어느상황에서도 광고주의 창의적인 광고활동은 보장되어야 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광고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나아가 광고주와 매체사가 공동 발전할 수 있는 건강한 토양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광고는 국가경제를 키우는 핵심 동력이며, 광고는 이제 우리 나라 미디어산업 매출액의 70%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전하며 "광고 없이는 미디어가 존재할 수 없고, 미디어가 없이는 민주주의를 꽃피울 수 없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또 "앞으로 정부는 광고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규준제도를 개선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광고를 통해 조성한 재원은 광고산업 발전에 쓰여야 하며, 이와 함께 우리 광고시장에도 객관적이고 합



유인촌 한국방송광고공사 공익사업본부

리적인 광고요금 체계 개선 및ABC 제도의 정착을 위해 앞으로 부수공사에 참여하는 인쇄매체에 한해 정부 광고를 배정함으로써 광고시장에 건전한 경쟁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정병철 전국경제인연합회상근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지난9년간 광고주대회는 자유시장경제 이념의 확산과 광고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광고의 질적 발전을 위한 밑거름



광고주의 밤 서회를 맞은 신정숙, 박은경 SBS 아나운서



축사를 전하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 되어왔다"고 전하며 "우리 사회에서 기업의 핵심 마케팅 수단인 광고의 자유를 저해하는 일이나 반시장주적인 일은 지양해야 하며, 아울러 기업들보다 비윤리적이고 반기업정서를 부추기는 매체에는 광고를 자제하여우리 사회가 올바른 길로 가는데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격려사를 전하는 정병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이희진 포스코 대표



김승연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조한수 삼성전자 글로벌마케팅 부사장



경과모임을 발표하는 정상국 기획위원장(LG 부사장)